

여러분의 기억이 역사관의 기록이 됩니다.

기억을 넘어 기록으로



땅에 묻지 마세요, 태우지 마세요.

눈물 젖은 여러분의 물건이 우리의 역사가 될 수 있습니다.

-
- 수집대상: 일제 강제동원 피해 관련,
아시아태평양전쟁 관련 사진·문서·의류·도서 등
 - 문의처: 051-629-8615
-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48532 부산광역시 남구 홍곡로 320번길 100 (대연동 산 204-1)

Tel 051 629 8600 Fax 051 629 8619 Homepage <https://www.fomo.or.kr/museum>



Vol.31

Forced Mobilization

함께 기억하고, 널리 알리는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소식지

Fomo

2023
하반기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FOMO

03 포모를 소개합니다

알립니다

04 재단·역사관 소개

05 신입 관장 소개

06 재단·역사관의 새로운 직원들을 소개합니다

재단 이야기

08 2023년 일제강제동원희생자 전국합동위령제 개최

10 추도순례, 인도네시아를 횡단하며

[특집] 유족을 만나다

12 [특집] 유족이 기억하는 강제동원 피해자
강제동원 피해자와 남겨진 사람들의 이야기

역사관 이야기

16 日常 일상 vs 日象 일상

18 캘리그래피 특별전 '우리는 기억합니다'
가슴으로 뜻을 알리고 손끝으로 뜻을 펼칩니다

20 특별순회전시 '잊힌 그날의 기억'

21 엄마 아빠와 함께해요! 강제동원 시웹툰교실

22 근대사를 기록하는 여러 방법: '사진', '통계', '구술', '수기'
기록이 남긴 근대사 속 우리들의 아픔

24 어린이체험관 프로그램

25 포모랑 나랑

26 2023 박물관 교육 어울림 한마당

기억을 기록하다.

28 2023년 기증 유물 소개- 피해자 민찬식의 사진

30 2023 구입 유물 소개

32 직업탐구 - 박물관의 레지스트라

함께해요 FoMo

34 포모 색칠하기 콘테스트

36 포모가 준비한 부채 받아 가세요

37 포모를 찾아라!

역사관을 찾은 사람들

38 민주평통 방문기(7/22)

39 서울시의회 방문기(10/4)

도슨트 활동기록

40 부산박물관 도슨트 답사

42 도슨트 특별활동 1. 역사관 향수 제작

43 도슨트 특별활동 2. 팟캐스트 운영

더 나은 역사관 만들기

44 역사관 고객 만족도 조사 결과

45 공익신고·신고자 보호지원제도 알아보기

46 만족도조사

일러두기 FOMO는 일제의 강제동원을 뜻하는 Forced Mobilization의 약칭입니다. 일제강제동원이란, 일본 제국주의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침략전쟁을 벌이기 위해 자행한 인적·물적 동원 및 자금통제를 말합니다. 강제동원은 잊어서도, 잊혀서도 안 될 인권유린의 뼈아픈 역사입니다.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매거진

발행일 2023년 11월 30일 통권 제31호 | 발행인 심규선 | 편집인 노경달

편집위원 강창석, 김기수, 김성곤, 배연우, 정복엽, 진홍국 | 기획·편집 반선영 김정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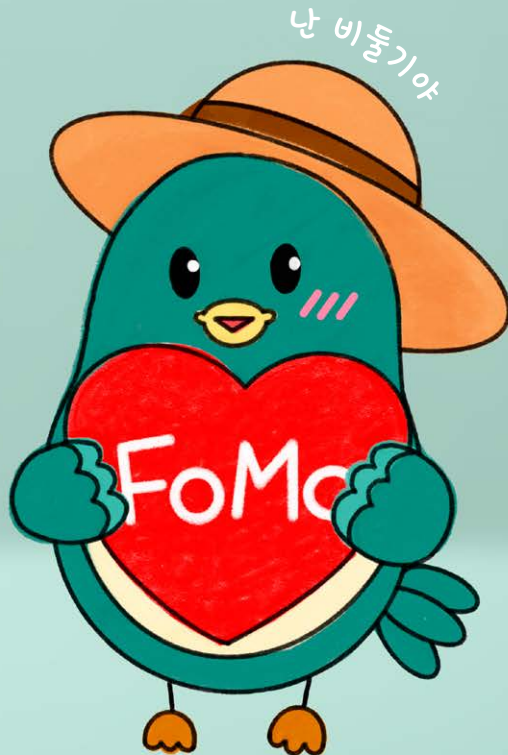
디자인 효민디앤피 | 홈페이지 <https://www.fomo.or.kr/museum>

포모를 소개합니다

포모(FoMo)

강제동원의 영어표기 'Forced Mobilization'의 약자

일제강제동원 피해자(과거), 유족(현재), 미래세대(미래)를 오가며
일제강제동원의 역사와 평화의 소중함을 알리기 위해
오늘도 열심히 일하는 포모를 응원해 주세요!



포모는 전쟁으로 생겨난 아픈 역사를 전달하는 온화한 평화주의자
아이들을 좋아해. #MBTI #CUTE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4년 6월 2일에 설립한 공익법인이다. 일제강제동원피해·희생자·유족에 대한 복지지원, 추념 및 강제동원 피해와 관련한 문화·학술·연구·조사 등을 주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재단은 국민통합과 평화·인권신장에 기여하기 위해 기관의 역할과 역량을 강화하여 과거사 문제 해결의 후속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의 실상을 규명함으로써 성숙된 역사의식을 고취하고, 인권과 세계평화에 대한 국민 교육의 장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건립했다. 역사관은 일제강점기 때 부산항이 대부분의 강제동원 출발지였고, 강제동원자의 22% 가량이 경상도 출신이었다는 역사성과 접근성 등을 감안하여 부산에 건립했다. 2015년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기념일에 개관하여 평화와 인권의 소중함을 알리는 데에 힘쓰고 있다.



일제강제동원 피해자와 희생자 그리고 유족들의 이야기가
더 많이 알려질 수 있도록 역사관의 다양한 사업을 홍보하는 데에 힘쓰겠다.

11월 1일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신임 관장 **류승자** 부임



2023년 11월 1일, 재단에서는 류승자 역사관 관장의 취임식이 열렸다. 류 관장은 부산동구청, 부산시청, 부산인재개발원 및 홍보담당관실에서 근무하였고, 주일본부산시무역사무소장 등을 역임하였다.

재단·역사관의 새로운 직원들을 소개합니다.

2023년부터 재단이 채용하는 신규직원들을 대상으로 기관에 대한 이해도와 조직 적응력 및 업무 능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 3박 4일 동안 재단과 역사관을 오가며 실무와 기본적인 소양 교육을 수료한 3차 신규직원들의 후기와 각오를 소개한다.



강세영

안녕하세요. 2023년 3차 신규직원으로 들어오게 된 전시교육팀 강세영입니다. 먼저 의미 있는 사업을 하고 있는 재단과 함께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교육을 들으며 재단이 가고 있는 길에 대해 잘 이해하게 되었고, 함께하는 동안 제 자리에서 재단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신입직원 교육을 하며 만난 FOMO 직원분들의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화합하려는 모습을 본받아 저 역시 FOMO에 잘 융화되

어 맡은 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친절하게 맞아주신 직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김보현

교육을 받으면서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아니라 우리 기관이라고 말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기관 운영을 위해 각자의 영역에서 노력하시는 구성원들을 면담하는 과정을 통해서 저는 제 영역에서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일해야 할지 마음을 다잡을 수 있었습니다. 부족함이 많겠지만 최선을 다

해서 사업 수행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김정민

안녕하세요. 재무관리팀에서 근무하게 될 신입직원 김정민입니다. 4일간의 교육을 통해, 회사 생활에 필요한 실무를 세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유익했습니다. 또한 역사관 방문을 통해, 일제강제동원피해자 지원재단의 한 일원으로서의 무게감을 느꼈고 책임감 있게 업무를 해야겠다고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팀별 면담을 하며 한 분 한 분 인사드릴 수 있어 반가웠습니다.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의 한 직원으로서 부끄럽지 않은 직원으로 성장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송소미

안녕하세요. 전시교육팀에서 일하게 될 신입사원 송소미입니다. 4일간의 신입사원 교육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먼저 교육에 도움을 주신 모든 직원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첫 일정이었던 임용식부터 시작하여 업무교육과 역사관 투어 등 유



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교육을 진행하며 각 팀별 면담 시간이 있어서 인사를 나누며 어떤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는지 알 수 있어서 좋았던 거 같습니다. 모든 직원에게 환영받고 4일간의 교육을 통해 정말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의 일원이 되었음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저 또한 환영받을 수 있는 직원이 될 수 있도록 하나하나 배워나가며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창근

2023년도 제3차 신규채용 시설관리직에 채용되어 너무나도 감회가 새롭고, 2번 떨어지고 3번째 도전해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 일하게 되어 너무나도 영광입니다. 먼 곳에서 찾아와주신 관람객을 사고와 화재로부터 지키는 일을 최우선으로 하겠습니다.

허태진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전시교육팀에서 근무하게 될 허태진입니다. 저에게 있어 4일간의 오리엔테이션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라고 하는 이름이 가지는 무게를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피해자들을 위해 일하고 있는 선배 직원분들의 모습을 보며 제가 해야 하는 일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의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러한 사실들을 알리고 피해자분들께 힘이 되어줄 방법을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전국합동위령제에 참석하여 헌화와 분향을 하는 유가족

2023년 일제강제동원희생자 전국합동위령제 개최

- 처음으로 부산과 서울에서 분산 개최

지난 9월 22일, 일제강제동원 희생자의 넋을 진혼하고 유족의 슬픔을 위로하는 ‘2023년 일제강제동원희생자 전국합동위령제’가 부산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과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열렸다. 올해로 8회째를 맞이한 전국합동위령제는 해마다 부산 일제강제동원역사관에서만 개최했던 예년과는 달리 고령인 유족들의 편의와 안전을 고려하여 부산과 서울에서 분산 개최하였다. 또한 누구나 손쉽게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재단·행정안전부·KTV 등 3개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동시생중계로 진행했다.

식전 종교의례를 시작으로 오후 2시부터 공식 행사의 막이 올랐다. 국민의례, 내빈소개, 경과보고, 추모사(유족대표, 행정안전부, 재단), 추모공연 등이 뒤를 이었다.

마지막 순서로 참가자들의 헌화 및 분향 시간을 가졌다. 고령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강제동원으로 희생된 가족을 추모하기 위한 유족들의 행렬이 한동안 뒤를 이었다.

전국합동위령제를 통해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희생자 분들의 넋을 진혼함으로써 유족들에게도 위로가 되고, 일제강제동원의 역사가 잊히지 않고 후세에 교훈을 주는 기회가 되었기를 바란다.

추모사

10대와 20대의 꽃다운 나이에 일본제국주의의 희생양이 되어 사랑하
는 가족과 눈에 밝히는 고향 산천을 두고 억울하게 생을 마감했거나,
비록 목숨은 건졌을지 모르나 그 후 힘들고 고단한 삶을 살다가 외롭
게 가신 분들의 원통함을, 우리가 얼마나 위로할 수 있을지 두렵기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령들이시여,
우리는 오늘 전국합동위령제라는 이름으로 이곳에 모여
여러분이 모든 울분, 회한, 고통, 미련을 내려놓으시고
부디 영면하시기를 간곡히 기도드립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희생을 기억하고 또 기억하겠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희생을 더 널리 교육하고 전파하겠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더 큰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후손이 좀 더 나은 대우를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얼마나 많은 선열들의 희생이 있었는
지를 잊는 법은 결코 없을 것이며, 다시는 이런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
도록 하겠다는 후손들의 다짐도 결코 약해지는 법이 없을 것입니다.

- 2023년 전국합동위령제 재단 이사장 추모사 중



전국합동위령제에서 추모사 중인
심규선 재단 이사장



역사관에 참석한 유족들이 헌화와 분향을 하고 있는 모습



서울시청에 마련된 위령제 공간에서 유족들이
헌화하는 모습



1. 암바라와 성 내 위안부 처소 2. 수라바야에 있는 평화 기원의 탑

추도순례, 인도네시아를 횡단하며

글. 김현수 재단 유족지원팀

8월 23일부터 28일까지, 4박 6일간의 해외 추도순례는 인도네시아 각지를 순례하며 희생자를 추모하고 꽃을 올리는 여정이었다.

첫날은 자카르타에 늦게 도착하여 쌓인 피로를 풀기 위해 바로 숙소로 들어갔다. 그 다음날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 자카르타 순례. 처음으로 방문한 곳은 인도네시아 국립박물관이었다. 선사부터 현재까지의 인도네시아 각지의 유물을 볼 수 있었고, 석조 유물은 유리장이 없어 그대로 볼 수 있어 놀라웠다.

다만 아쉬웠던 것은 제2차 세계대전에 관련된 부분은 다른 시기보다 설명이 적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전체적인 인도네시아 역사를 알고 순례를 시작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출발이었다.

자카르타에는 항일 독립운동가였던 장윤원 선생의 묘가 떠나 쿠시르라는 공원묘지에 안장되어 있었다. 수많은 묘지 중에서 장 선생의 묘를 찾기란 서울에서 김서방 찾기였다. 다행히 사전답사 때 미리 찾아두어 유족들을 모시고 한 번에 찾아갈 수 있었다. 여전히 묘는 관리가 부실해 관리인들에게

돈을 쥐어주고 주변을 정리했다. 경건한 마음으로 다 같이 추모한 후 꽃가루를 뿌리고 무덤에 헌화하였다.



3. 인도네시아 국립박물관 견학



4. 떠나 쿠시르 공원의 장윤원 선생을 추모하는 유족

25일(금)



5



6



7

5. 조선인들이 강제동원되었던 암바라와 성 6. 암바라와 성 내 위안부 처소 7. 성요셉 천주교 성당

26일(토)



8



9



10

8. 수라바야에 있는 평화 기원의 탑 앞에서 기념 촬영 9. 평화 기원의 탑 앞에서 진행한 추도식 10. 수라바야 북쪽 부두에서 피해자를 추모하는 유족

셋째 날은 인도네시아 국내선을 타고 세마랑이라는 곳에 갔다. 그곳에는 조선인들이 군인(군무원) 및 위안부로 강제동원되어 생활하던 터가 있었다. 허름한 암바라와 성에 군인들을 지내게 하고 군인들이 볼 수 있는 그 맞은편에 조악한 건물을 낮게 지어 위안부들을 가두어 놓았다. 위안부 처소라고 불리는 그곳은 너무나 작고 열악한 환경의 시멘트만 바른 방이었으며 한 사람이 눕기에도 빠듯해 보이는 침상이 있었다. 많은 유족분들이 보기 힘들어 하시며 더 자세히 보시지 못하고 중간에 포기하셨다. 또 포로 감시원으로 생활하던 군인들은 일제에 저항하며 고려독립청년단을 결성, 저항하였으나 결국 자결로 끝나고 말았다. 살아남은 자들은 B·C급 전범으로 처형당해야 했다.

넷째 날은 수라바야라는 도시까지 버스를 타고 이동하였다. 마침 새로 뚫린 고속도로가 꽤 많은 시

간을 단축시켜 주었다. 순례단은 (구)위원회에서 건립한 평화 기원의 탑에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후 유족대표, 이사장 추도사를 진행하고 헌화를 하는 것으로 추도식을 마쳤다. 직후 북쪽 부두로 가서 바다를 향해 꽃을 던지며 고인을 회상하고 추억하는 헌화식을 가졌다. 그렇게 추도 순례단의 일정은 마무리되었다.

태평양전쟁의 상흔을 돌아보며 일제에 의해 강제로 떠나면 이국땅에서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쳤던 사람들. 이제는 희생자가 되어 그들의 가족을 만날 수조차 없게 되었지만, 당신들의 존재를 기억하고 낯을 기리기 위해 남은 후손들이 이곳 인도네시아까지 찾아왔다.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은 이러한 아픔을 가지고 있는 유족과 함께 희생자가 있는 지역은 어디라도 달려가 그들의 영혼이 평안하기를 기원할 것이다.

강제동원 피해자와

남겨진 사람들의 이야기

Interviewer. 반선영, 김정원 역사관 유물홍보팀

역사상 인권유린과 폭력, 학살, 의문사 사건 등을 조사하여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밝혀내어 민족의 정통성을 확립하고, 과거와의 화해를 통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과거사정리법’. 그 시작에 일제강제동원이 있다.

광복 78주년을 맞이하였지만 여전히 맺음말을 쓰지 못한 일제강제동원사는 여전히 우리 사회의 큰 화두로, 2023년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 큰 주목을 받았다. 상처로 얼룩진 ‘과거와의 화해’를 치열하게 고민하는 때에 우리는 그 피해자의 가족을 만났다. 역사관 소식지에 매번 답장을 보내주시던 인경술 님(1935년생, 88세)과 그 가족이다. 인경술 님은 남양군도에 징병되어 전사한 강제동원 피해자 인금수 님(1921~1944)의 동생으로, 피해자 인금수 님의 삶과 남겨진 가족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셨다.



따뜻한 미소로 포모를 맞이해준 인경술·조금이 부부

Q. 피해자 인금수님은 어떻게 강제동원 되었나요?

나는 올해 88세이고, 형님은 살아계시면 102살 되나? (형님이) 학교 다닐 때 공부를 그렇게 잘했대요. 공부 다 끝나고 나니 일본 사람들이 형님 더러 사방*소장으로 가라고 했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 형님이 그걸 싫다고 안 갔다고 해요. 돈 벌러 북해도 광산으로 갔다고 해요. 북해도 광산에 가서 차출이 돼서 군에 가서 전사를 했어요. 전사하고 (해방까지) 1년 4개월이라는 시간이 있었는데, 일본 사람들이 전사통보를 해주지 않았어요. 당시 한국에 있던 일본대사관과 많이 싸웠어요. 일본대사관에서는 본국에서 서류를 다 보냈으니, 기다려 보라고 해요. 1년을 기다려 봐도 통보가 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 한일협정 때, 일본에 다녀왔던 사람들 보상해 준다고 할 때 세무서에서 명부를 가지고 있었어요. 일본에서 온 전사자 명부가 이만해요. 그걸 하나씩 넘기면서 찾아보니 형님이 나와요. 거기 보니 남양군도에서 전사했다고...3월 6일... (저도 이제) 나이도



피해자 인금수가 조선총독부 육군병지원자훈련소 재소 당시 단체사진이다.

많고, 형님(유해) 찾고 하는 건 다 잊어버렸지요.

*사방(砂防): 수력이나 풍력에 의해 흙·모래·자갈 등이 이동하는 것을 막아서 재해를 예방하거나 줄이려는 토목공사를 하는 곳

Q. 어렸을 때인데, 당시 형님이 기억나세요?

형님 군대에 가는 것도 몰랐고, (제가) 철이 안 들었을 때 형이 갔어요. 광산에서 징용으로 차출이 돼가지고 집에 못 왔다 그래요. 군청까지만 와가지고 아버지, 어머니가 가서 (형님) 만나고 가는 거 보고...

Q. 인금수님은 당시에 가족이 있었나요?

결혼을 안 하고 독신으로 갔죠. 후손이 없지요. 그래서 한일협정 때 보상해 준다고 할 때에 형제간에는 보상이 안 된다고 해서 보상을 못 받았지요. 나중에 형제도 되고 사촌도 보상해 준다고 할 때에 (보상을) 받았어요. 전사자명부를 첨부해서 냈더니, 그때 2천만 원이 나왔어요.

인금수는 일제시대에 중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18
으로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하였으며 가정형편이
자식이라 어렵게 살았기 때문에 사방소장 명칭이
음면에 배정되어 중학교에서 사방소장으로 가라고 지시
를 받았으나 본국에서 살았으니 기다리고 돈 벌러
일본 북해도 광산으로 지원하여 갔습니다 거기서
돈을 벌어서 1년에 장안으로 시 고향으로 우편 송금을
하였습니다 광산에서도 열심히 일하고 일본 정부는 광
산에서 근무한 수당으로 2천원 정도 전사한에 비견
되었습니다 광부로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거기서 일본
군으로 차출되어 일본서 집에 온다고 온 것이 겨우
예전 군청 개직 시간이 없어서 용문면까지 왔고
거기서 유족이 가서 상면하고 온게 되었다 온다고
하면서 작별 하였다. 그후 저의 모친은 반신

인경술 님께서 역사관에 보내주신 편지 일부 2022.12.10.

[특집] 유족을 만나다



인경술 가족의 사진첩을 보며 해방 후 가족들의 삶을 알 수 있었다.

Q. 해방 후에 남겨진 가족들은 어떻게 지내셨나요?

해방되고 나서 형님은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고 지냈죠. 형님이 장남이거든요. 어머니는 돌아가실 때까지 ‘가 우예됐노, 가 우예됐노’ 하셨어요. 어머니는 62년도에 돌아가셨는데, 전사한 걸 모르고 돌아가셨지요.

Q. 역사관 와보셨지요? 어떠셨어요?

네. 잘 해놨더라고요. 손자(인준영 님)가 사학과 출신이에요. 손자가 망향의 동산에 가보고 나서 가족들도 망향의 동산에 여러 번 가보고 부산에 가면 유엔묘지 위에 가면 일제강제동원역사관 잘 꾸며져 있다고 해서 가족이 모여서 갔다 왔어요. 그 뒤에는 다리가 불편해서 못 가보네요.

사진 이런 거를 나 죽고나면은, 애들이 옹게 관리 못하니까 역사관으로 보냈어요.

위패관이랑 (명예의 전당) 명패도 봤어요. 망향의 동산에 있던 위패를 역사관으로 옮긴다고 해서 위패관에 옮긴 것도 봤어요.

망향의 동산에 있던 일제강제동원 희생자의 위패를 역사관 기억의 터로 새로 안치하면서, 망향의 동산 위패를 유족들에게 돌려드렸다. 그간 거동이 불편하셔서 가져가지 못하셨던 인금수 님의 위패를 인경술 님께 전달했다.

‘내 죽거든 내 옆에 묻어, 보관할 사람 있나?’

인경술 님과의 짧은 만남을 마친 후, 며칠 뒤 손자 인준영 님을 역사관으로 초청했다.

Q. 큰할아버지(인금수 님)의 강제동원 사실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할아버지(인경술 님)에게 큰할아버지 이야기를 많이 전해 들었어요. 제가 사학과를 나왔어요. 처음에 유품을 서대문형무소에 기증하셨다고 했는데, 이후에 검색하다 보니 역사관으로 유품이 와 있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2019년도에 역사관에 와서 큰할아버지 유품들을 봤었어요. 할아버지께 이런 사실을 알려드리니 같이 가보자 하셔서 2021년도에 또 한 번 오게 되었어요.

지금 저는 34살인데, 강제동원이라고 하면 먼 옛날 이야기처럼 들리고, 내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당장 우리 가족 중에도 이런 일을 겪었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먼 이야기처럼 생각되지 않았어요.

Q. 피해자와 유족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기억’인 것 같아요. 할아버지께서도 걱정하시는 게, 본인이 돌아가시고 나면 형님의 피해사실이 다 잊혀지고,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할

아버지가 8살 때 돌아가셨으니, (큰할아버지는) 저희 아버지도 삼촌도 아무도 뵈는 적이 없는 분이세요. 사진도 여기에 기증해서 없었고, 저도 여기에 와서야 사진을 봤으니, 본인의 형이 잊히는 것에 대한 걱정이 있으세요. 보상이나 이런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기억’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닐까 해요. 그런 점들이 역사관 존재의 이유일 것 같아요. 유족 1세대 분들은 많이 연로하시고, 유족 2, 3세대는 직접 겪은 것이 아니니 기억에서 많이 잊힌 것 같아요. 큰할아버지께서 처음에는 북해도 광산에 징용을 가셨다가 남양군도로 징병을 가셨고, 가신 지 3, 4개월 만에 돌아가셨대요. 할아버지 기억에도 큰할아버지 얼굴이 가물가물 하다고 하세요. 할아버지 당신마저 돌아가시고 나면 형님을 기억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까봐 걱정하시는 것 같아요.

Q. 재단과 역사관에게 바라는 점이 있다면?

할아버지께서 역사관에 오셨을 때에도 ‘사람이 많이 없다’ 그러셨거든요. 같은 국립박물관인데, 국립중앙박물관이나 국립경주박물관, 지역 박물관들



처럼 많이 알려지진 않은 것 같아요. 주말에도 왔었는데, 관람객들이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많이 방문해서 계속 기억할 수 있도록 홍보 방안을 마련했으면 해요.

당시 약 780만 명이 일제강제동원의 피해를 입었다면, 강제동원은 비단 현재 뉴스에 나오는 피해자와 유족들의 이야기로 국한할 수 없는 문제일 것이다. 피해자와 유족들은 일제강제동원을 ‘기억’하길 바랄 것이라던 인준영 님의 말씀처럼, 오래도록 이어지는 기억 속에서 ‘과거와 화해’할 수 있기를 기원한다.



11월 3일, 역사관에 방문하여 인터뷰에 응해주신 인준영 님. 큰할아버지(인금수 님)의 위패와 유품을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다.

日常

일상
vs
일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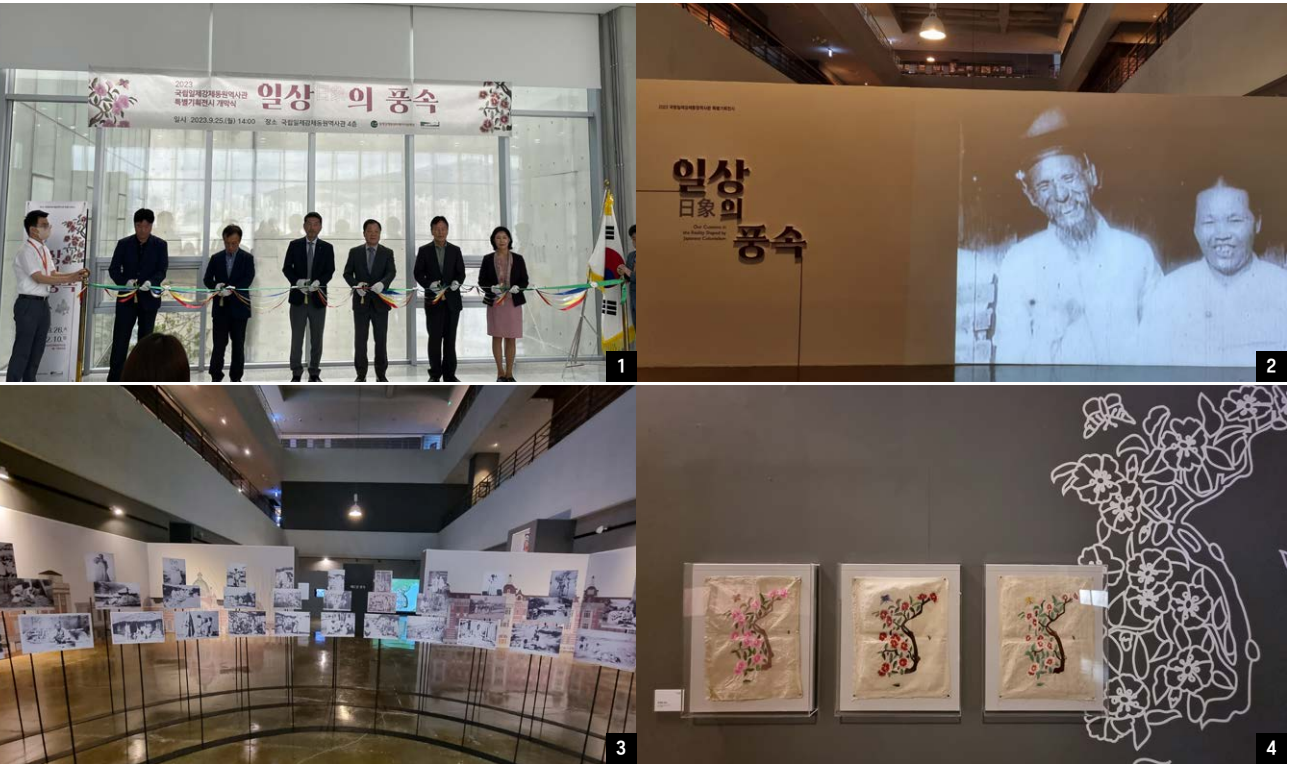
日象

9월 26일부터 12월 10일까지 역사관 4층 기획전시실에서는 <일상日象의 풍속> 전시를 열었다. 한자를 조금 아는 관람객이라면 ‘일상日象’의 글자를 보고 고개를 갸우뚱할 것이다. 그렇다. 이 단어는 사전에는 없는 것으로, 제국주의 일본이 만들고자 했던 조선의 모습을 의미하는 조어이다. 이러한 ‘일상日象’은 우리의 평범한 ‘일상日常’과 대립했고 갈등했다.

일제는 조선을 식민통치하면서 오랜 기간 영위하고 있던 우리의 일상을 파괴하고자 했다. ‘천황’에 충성하는 ‘신민’을 만들기 위한 작업이었다. 조선인을 충실한 신민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 뿌리부터 조선인이 아닌 일본인의 것으로 바꾸어야 했다. 일제는 조선의 풍속을 ‘원시적이고 야만적인 것’이라는 틀 속에 가두고 문명화된 제국주의 국가, 일본이 조선을 지배하는 것을 정당화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조선총독부는 우리의 풍속과 문화, 민속신앙, 종교의례 등을 대대적으로 조사하였다.



특별전 「일상의 풍속」 개막식에서 추경아 학예사의 전시해설을 듣는 내빈들



1. 특별전 「일상의 풍속」 전시 개막식 2. 「일상의 풍속」 전시장 입구 전경 3. 「일상의 풍속」 전시 전경 4. 최용신기념관 소장 유물 '무궁화 자수' 3점



「일상의 풍속」 전시 포스터

또한 우리의 풍속을 ‘구습’이라 칭하고 조사 결과를 식민통치의 합리화와 정책 수립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나아가 일제는 아시아태평양 전쟁 시기 조선인에게 새로운 풍속을 강요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조선인은 우리의 것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였다. 우리의 전통을 이어가는 것은 우리의 것을 지키는 것인 동시에 일제에 대한 민족적 저항의식을 드러낸 것이기도 했다. 우리의 것을 지키고자 노력했던 이들은 이름난 영웅이 아닌 그저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평범한 조선인들이었다.

이번 특별기획전에서는 이런 내용을 담아 다양한 유물과 영상을 전시했다. 경기대학교 소성박물관, 대구근대역사관, 대구대학교 중앙박물관, 부산박물관, 최용신기념관의 소장 유물과 함께 한국영상자료원 소장 희귀 영상을 만나볼 수 있었다. 일제 강점의 아픔은 그 시대를 살아간 사람들, 일부 피해자들에게 그치는 것이 아니다. 일상을 뒤흔든 그 시절의 아픔은 우리 모두가 기억하고 되새겨야 할 역사이다. 우리의 소중한 일상日常이 더이상 다른 모습으로 변하지 않도록 지키는 것은 현시대를 살아가는 지금 우리의 몫이다.

캘리그래피 특별전 ‘우리는 기억합니다’

가슴으로 뜻을 알리고

손끝으로 뜻을 펼칩니다

지난 9월 16일 역사관 6층 기획전시실에서 ‘우리는 기억합니다-일제강제동원 희생자를 추모하며’ 캘리그래피 특별전을 개최하였다. 이번 특별전은 일제강제동원 희생자분들의 넋을 기리고 아픈 역사를 잊지 않고 국민들이 널리 기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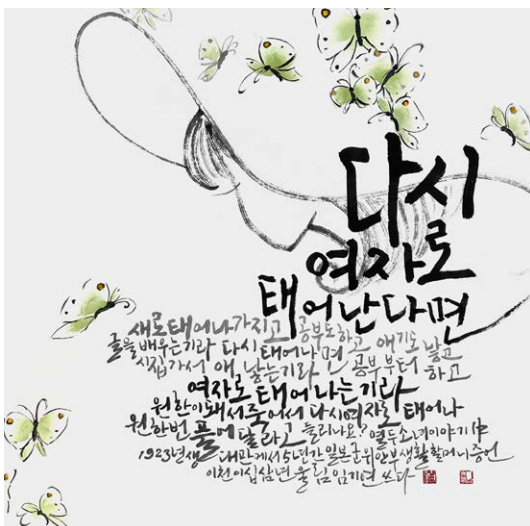
특히 국내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 55명의 캘리그

라피 작가분들이 피해자들의 생생한 증언이 담긴 이야기들과 시인들의 추모글을 담아 완성한 60점의 작품을 전시했다.

‘우리는 기억합니다’ 특별전은 둘도 없는 이야기와 둘도 없는 글씨의 만남이다.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이야기는 세상의 둘도 없는 이야기이다. 캘리그래피는 세상에 둘도 없는 글씨이다. 캘리그래피는 같은 작가가 같은 글자를 쓴다고 해도 결코 같은 글자가 될 수 없다. 그러니 세상에 둘도 없는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절절한 사연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세상에 둘도 없는 글씨, 바로 캘리그래피일 것이다. 그래서 이번 특별전을 준비하며 겉으로 보이는 표현 수단으로 캘리그래피를 선택한 이유이다.

특히 이번 특별전에서는 우리나라 1호 캘리그래피 이상현 작가의 작품과 강제동원 관련 시인으로 유명한 홍찬선 시인의 시를 캘리그래피로 표현한 작품도 만날 수 있었다. 또한 일본 홋카이도 강제노동 유골 발굴 작업에 참여했던 경험을 담아 가수 정태춘이 작사, 작곡한 노래 ‘징용자 아리랑’을 재해석한 ‘달아, 높이곰 올라라’ 작품도 선을 보였다. ‘우리는 기억합니다’ 특별전을 개최하기 위해 글씨문화발전소 글락을 비롯해 (사)한국캘리그래피디자인협회, 캘리그래피디자인 그룹 ‘어(語)울림’, 이상현캘리그래피연구소, 서글書글, 성하당, 디자인윤플 등 다양한 캘리그래피 단체와 서울시인협회에서 후원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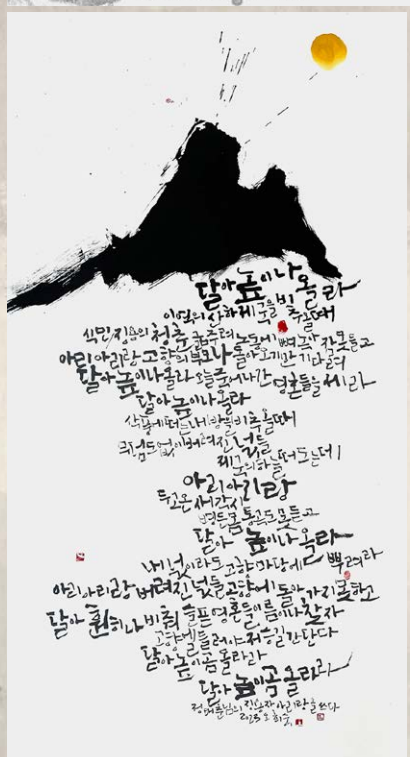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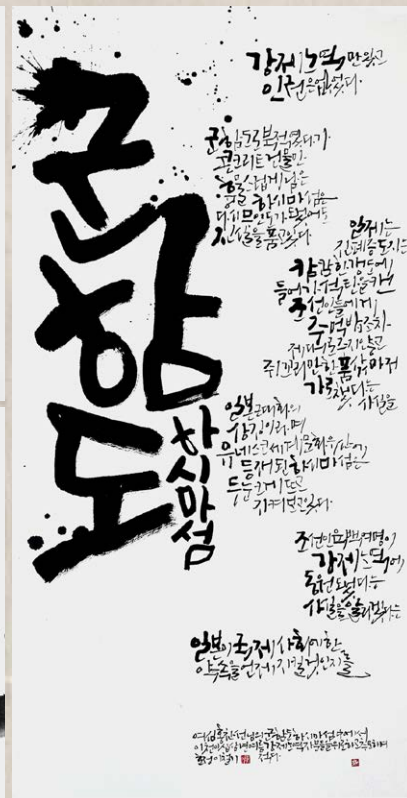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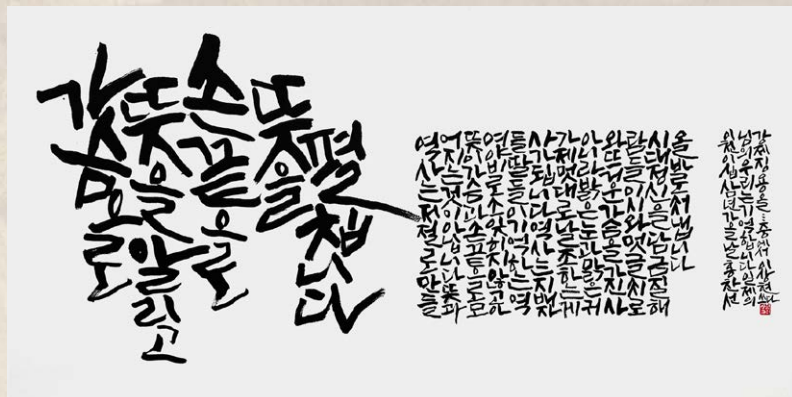
캘리그래피 작가들이 재탄생시킨 강제동원 희생자들의 이야기와 추모 작품들을 통해 당시의 고통과 아픔을 함께 공감하고 기억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



열두 소녀의 이야기. 임기연 씀

우리는 기억합니다! 일제의 강제징용을, 홍찬선 글, 이상현 씬

군함도 하시마섬, 홍찬선 글, 이철기 씬



달아, 높이 솟아 올라. 정태춘 글, 오희숙 씬

「우리는 기억합니다」 전시 전경

특별순회전시

‘잊힌 그날의 기억’ Memory of the Forgotten Da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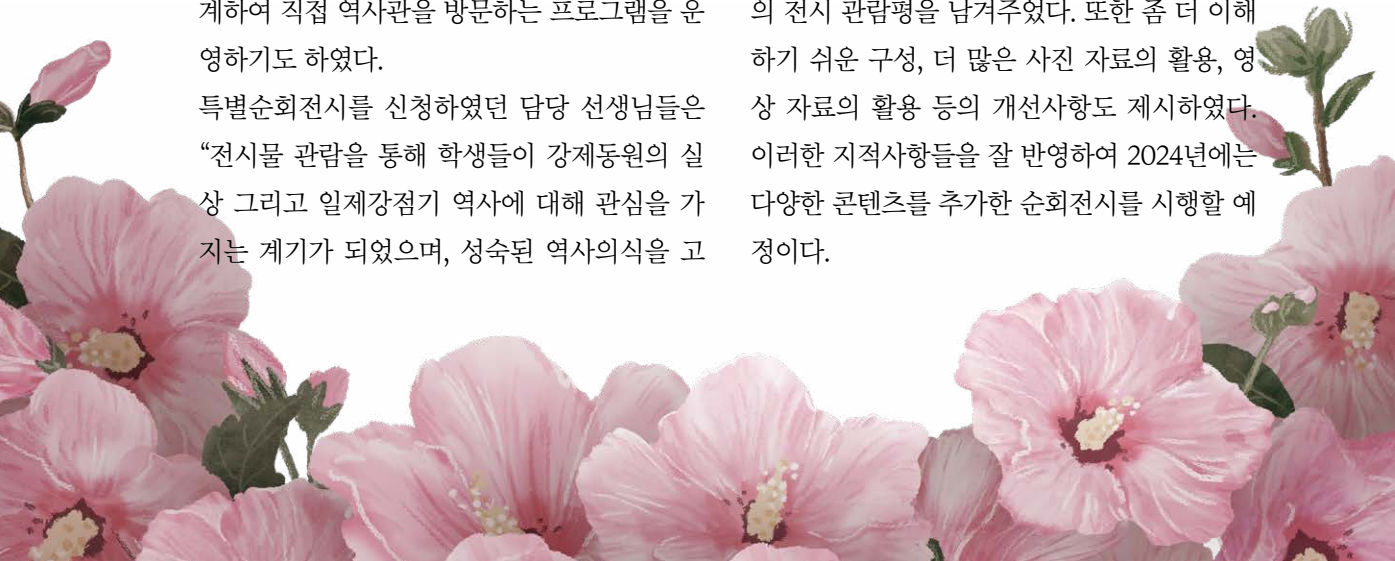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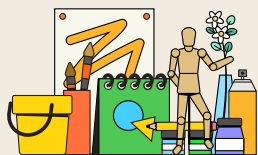
2023년 3월 시작한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특별순회전시 ‘잊힌 그날의 기억’이 지난 9월 27일 창녕 박진전쟁기념관에서 여덟 번째 순회 전시를 개최하였다. 특별순회전시는 역사관 상설전시실 내용을 축약한 전시로, 다양한 공간에서 일제강제동원 및 제국주의의 실상과 아픔을 공유하기 위하여 기획하였다. 2023년 한 해 동안 여러 중·고등학교, 박물관 등에서 전시물 대여를 요청하였고, 많은 학생들과 박물관 관람객들에게 일제강제동원 역사를 알릴 수 있었다. 올해 특별순회전시를 개최했던 부산고등학교와 경주여자고등학교에서는 이번 전시와 연계하여 직접 역사관을 방문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하였다.

특별순회전시를 신청하였던 담당 선생님들은 “전시물 관람을 통해 학생들이 강제동원의 실상 그리고 일제강점기 역사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되었으며, 성숙된 역사의식을 고

취하고 인권과 세계 평화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다.”, “직접 역사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고등학생들이 교내 점심시간과 방과 후, 그리고 창의체험 시간 등을 활용하여 전시물을 둘러보며 2학기에 실시할 근대사 수업에 더욱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평가하였다.

그리고 특별기획전을 둘러 본 학생들은 “평소에 잘 몰랐던 일제강점기 강제동원의 실상을 알게 되었고 이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이번 전시를 통해 한일 양국의 역사 갈등의 해결 방안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었다.” 등의 전시 관람평을 남겨주었다. 또한 좀 더 이해하기 쉬운 구성, 더 많은 사진 자료의 활용, 영상 자료의 활용 등의 개선사항도 제시하였다. 이러한 지적사항들을 잘 반영하여 2024년에는 다양한 콘텐츠를 추가한 순회전시를 시행할 예정이다.





엄마 아빠와 함께해요!

강제동원 AI 웹툰 교실



▶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사무처장과 수상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 '강제동원 AI 웹툰' 참여 가족들이 수상작을 함께 감상하고 있다.



▶ 많은 어린이들이 3D펜 아티스트에 참여하고 있다.



▶ 3D펜 아티스트에 집중하는 어린이들



▶ 캘리그래피 업서가 나오기를 기다리는 가족들

지난 6월 18일 역사관에서는 '엄마 아빠와 함께하는 강제동원 AI 웹툰 교실' 경진대회 시상식과 부대행사를 개최했다. 8주간의 교육을 이수한 가족들을 대상으로 AI 웹툰 그리기 경진대회 시상식을 진행했다. 아울러 역사관을 방문한 모든 가족을 위해 3D펜 아티스트, VR에듀테인먼트, 이모티콘 캘리그래피, AI 웹툰 교실 등의 부대행사도 함께 운영했다.

근대사를 기록하는 여러 방법: '사진', '통계', '구술', '수기'

기록이 남긴 근대사 속 우리들의 아픔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5기수로 나누어 진행한 '2023년 역사관 아카데미'는 일제강제동원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및 역사관 탐방, 그리고 기록이라는 주제에 맞추어 국내 각지의 유명 강사들의 강연으로 구성되어 진행하였다.

해당 프로그램은 한 기수당 2주차로 운영하였는데, 1주차는 일제강제동원에 대한 설명과 역사관 탐방으로 역사관 직원들과 함께하는 시간이었다. 또한, 2주차는 전국 각지의 유명전문가의 특강과 더불어 역사관 직원 및 전문가와 소통하는 시간인 '교류의 시간'으로 운영하였다.

1주차의 경우, 일제강제동원 수업 및 역사관 탐방과 같이 역사관 직원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이에 대한 평이 좋았다. 3기 청강생 중 한 명은 "역사관 직원이 설명을 직접해주니 너무 즐겁고 재미있는 시간이었다. 그리고 내가 가르

치는 학생들에게도 일본군 '위안부'와 일제강제동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 수 있어 좋은 기회였다. 다음에도 참여하고 싶다."라는 평을 남겼다.

또한, 강연의 경우 전국 각 분야의 스페셜리스트의 특강을 들을 수 있었던 점이 눈길을 끌었다. 이번 강연은 약 180명이 참여하였을 만큼 큰 관심을 모았으며 강의 주제와 내용, 진행과 관련하여 청강자들에게 평균 5점 만점에 4.8점이라는 높은 평가를 받았다. 각 강연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1기 강연의 경우, 박환 수원대교수의 「역사 사진과 사진분석학-일제강점기를 중심으로」 강연을 진행했다. 박환 교수는 역사사진학이 가지는 특별함과 더불어 현재 알려진 사진들 중에는 잘못 알려진 사진들이 다수 있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주의해야 할 점을 전달하였다.



1기
박환 교수 강의
「역사 사진과 사진 분석학-일제강점기를 중심으로」



2기
김강산 이사 강의
「기록과 통계를 통해 살펴 본 관동대학살」



3기
오재연 교수 강의
「일제강점기 조선인 학병의 기억과 기록」



2기 강연은 김강산 ‘기억과 평화’ 이사의 「기록과 통계를 통해 살펴 본 관동대학살」이었다. 김강산 이사는 강연을 통해 당시 지진이라는 사건이 어떻게 조선인 학살로 이어지게 되었는지를 표와 기록으로 담담하게 풀어나갔으며 관동대학살 100주년인 올해, 그 날의 참상을 기억할 수 있어 의미 있는 강의였다.

3기 강연은 성균관대학교 오제연 교수의 「일제강점기 조선인 학병의 기억과 기록」이었다. 해당 강연에서는 강제동원된 학도병의 구술을 통해 이들이 가지고 있는 논쟁의 여러 측면에 대해서 다루었으며 여러 가지 깊은 고찰을 할 수 있는 주제였다.

4기 강연은 청암대학교 김인덕 교수의 「구술로 보는 노무노동과 건강」으로, 우리 역사관에서도 크게 다루고 있는 주제인 노무동원자들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상태에 대해서 다루었다. 해당 강연은 청강생뿐 아니라 우리 역사관에 있어서도 많은 참고가 되는 강연 주제로, 당시 노무동원자의 고통을 생생히 느낄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5기 강연은 한국외국어대학교 반병

률 교수의 「장윤만 선생의 『태평양전쟁 실기집』과 역사기록의 발굴과 활용」이었다. 반병률 교수는 이전 일제강제동원피해자재단의 서적인 『태평양전쟁 실기집』의 감수자로서, 장윤만 선생이 강제동원이라는 험난한 징용 상황에서 남긴 소중한 기록이 우리에게 전달되기까지의 여정과 그 가치를 강연을 통해 전달하였다. 서적의 감수자와 함께하는 서적 이야기는 많은 청강생들의 호기심을 자아내었으며, 많은 청강생들이 재단 홈페이지에 업로드 된 『태평양전쟁 실기집』에 대한 관심을 보였다.

이렇듯 각 기수의 특강들은 청강생들에게 지식을 전달할 뿐만 아니라 우리 역사관에서도 여러 가지로 생각할 지점을 준 강연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아카데미의 많은 기수가 빗속에서 열릴 정도로 굵은 날씨 속에 진행되었으나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으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었다. 항상 관심을 가져주시는 청강생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



4기



김인덕 교수 강의
「구술로 보는 노무노동과 건강」

5기



반병률 교수 강의
「장윤만 선생의 『태평양전쟁 실기집』과 역사기록의 발굴과 활용」



어린이체험관 프로그램

2023년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하반기 어린이체험관 프로그램 운영

역사관은 2023년 하반기 어린이체험관 ‘태극기 휘날리며’, ‘액자 속 빛나는 김구’, ‘별 헤는 밤’ 3종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태극기 휘날리며’는 어린 아이부터 다양한 연령층이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태극기의 역사를 알아보고 태극기를 색칠하는 프로그램으로 어린 아이들이 쉽게 체험할 수 있었다.

‘액자 속 빛나는 김구’는 스티커를 떼고 그 위에 포일을 붙이는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이 자유롭게 포일 색상을 정해 붙일 수 있었다.

‘별 헤는 밤’은 역사관에서 꾸준히 인기가 있는 프로그램이다. 특히, 부모님의 만족도가 큰 프로그램으로 일제강제동원의 4가지 유형이 그려져 있는 스티커와 와인병, 꼬마 전구를 이용해 분위기 있는 무드등을 만들어 볼 수 있다.

2023년 하반기 어린이체험관 프로그램은 9.19.(화) ~12.15.(금)까지 운영하였다.

(문의: 051-629-8633)





포모랑 나랑

제25회 UN평화축제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타일 컵받침 만들기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은 10.14.~10.15. 2일간 부산광역시 남구에서 주최한 제25회 UN 평화축제에서 ‘타일 컵받침’ 만들기 체험 부스를 운영했다. 전 연령층이 쉽게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참여자들의 관심을 끌었고 남녀노소 많은 참가자가 참여하였다. 재료 소진으로 체험부스 운영이 일찍 마감되어 아쉬움을 더했다.





2023 박물관 교육 어울림 한마당

가을비 속에서도, 활기찬 무드등 만들기

11월 4일 토요일, 가을의 시작을 알리는 가을비와 함께 부산박물관에서 『2023년 박물관 교육 어울림 한마당』이 개최되었다.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은 상설교육부스로 참여하였으며, 「역사 한 조각, 무드등 만들기」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해당 프로그램은 와인병과 전구, 스티커 등을 활용하여 자신만의 무드등을 만드는 프로그램으로, 단순히 무드등을 꾸미는 것이 아닌 와인병 하단에 부착하는 '강제동원의 4가지 유형 스티커'를 통해 강제동원이라는 아픈 역사의 한 부분을 생각해 보는 교육프로그램이다.

이번 어울림한마당 부스 진행의 경우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순조롭고 열정적이었다.'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부스 설치를 한 뒤 5분 정도 지났을 무렵, 아직 시작하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타 기관 부스 진행자들과 부산박물관을 찾는 관람객들이 「역사 한 조각, 무드등 만들기」에 배치한 빛나는 무드병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셨다. 특히, 프로그램 진행을 시작하자마자 비구름이 끼어 살짝 어두운 날씨 덕에 무드등이 더 아름다웠던 탓인지 신청 문의가 줄을 이었고, 한 시간이 지나자, 신청자들은 평균 50분을 기다려야 할 정도로 인기가 높았다.

참여율뿐만 아니라 평가도 좋았는데, 대체로 '무드등이 예쁘다.' '실용적이다.' '성인도 참여 가능하여 온 가족이 참여할 수 있기에 가족끼리의 추억이 되었다.'와 같은



부산박물관에서 진행된 2023 박물관 어울림 교육 한마당에 참여한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부스



가을비 속에서도 체험 부스를 찾아준 많은 참여자들의 모습

호평이 줄을 이었다. 특히, 한 참여자는 “일제강제동원을 예쁜 무드등을 만드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다는 점이 인상 깊었다.”라는 평을 남겼다.

더불어 다른 부스에 비해 눈에 띄는 점은 노년층의 참여도가 높다는 점이었다. 물론 이러한 결과는 이번 체험행사가 ‘무드등으로서 실용성이 있다’는 점도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그러나 노년층 참여자들은 단순히 무드등을 가져가기 위해서가 아닌, 어린이들 이상으로 열심히 그림을 그리고 무드등을 꾸미는 등의 열정을 보여주고 자신이 직접 만든 무드등을 보며 보람을 느끼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를 통해 ‘박물관 평생교육’이라는 말을 실감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끝으로 이번 부스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많은 분들의 관심과 지원이 있었기 때문이다. 먼저, 부스 운영을 지원해 주신 부산박물관 측과 더불어 부스 설치 당시부터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부산시민들, 같은 부산 소재 박물관으로서 응원해 주신 여러 박물관 선생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린다. 그리고 우리 역사관의 전시교육팀 팀장님과 상설교육담당자, 유물홍보팀 담당자분들, 시설관리팀 담당자분들, 청년 도슨트 두 분의 지원으로 오랜만에 참여한 『박물관 교육 어울림 한마당』임에도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었다. 모두의 성원에 감사드리며 내년에도 좋은 부스 운영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겠다.



※ 이번 「역사 한 조각, 무드등 만들기」에 아쉽게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은 오리지널 상설교육프로그램인 「별해는 밤」에 참여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홈페이지 참조.

2023년 기증 유물 소개



피해자 민찬식^{閔燦植}의 사진

역사관은 지난 7월 강제동원 피해자 민찬식의 사진 4점을 수증하였다. 기증자(민정희)가 할아버지의 유품 중 강제동원과 관련된 사진을 고인의 유지에 따라 역사관에 기증한 것이다.

기증자에 따르면,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에 강제동원 피해 신고 접수를 할 당시, 할아버지를 많이 도와드리지 못한 것이 죄송하여 역사관에 해당 자료를 기증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 자료들을 통해 근로봉사(학생동원) 현장, 피해자의 징병검사, 군사 훈련 이수 상황을 알 수 있어 수증가치를 인정하였다.

[사진 1] 경성공립학교 근로봉사 모습



경성공립직업학교 일본수학여행 단체 사진
(근로봉사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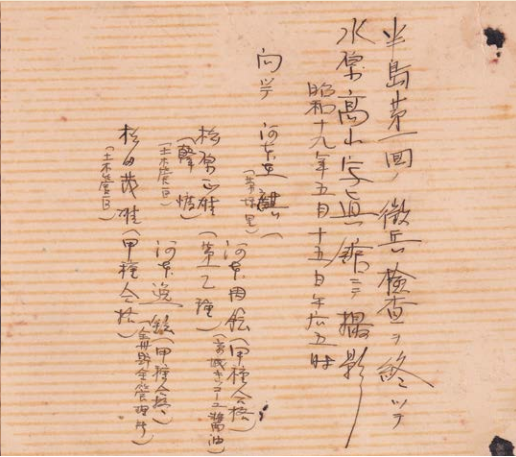


뒷면(사진 촬영 장소, 날짜 기재)
궁성 이중교^{宮城二重橋}의 외원外苑에서 근로 봉사하는 상황, 6월 2일 오전 중

1938년 중일전쟁 발발 직후 문부과학성 등 일제 당국은 학생들에게 여름방학과 학기 중에 3~5일간 '근로봉사'라는 미명하에 집단적 근로 작업을 수행하게 하였다. 그리고 1939년 이후에는 방학 때뿐만 아니라 수시로 근로봉사를 실시하고 이를 정식과목으로 인정하라고 지시하였다. 이러한 지시는 1941년 3월 이후 학교보국대^{學校報國隊}에 의한 강제동원을 실시하기 전까지 이어졌다.

[사진 1]은 경성에 재학 중인 조선인 실업학교 학생들이 수학여행 명목으로 도일하여 황궁의 건설 공사에 강제동원(근로봉사)된 상황을 보여준다. 당시 일상적으로 이루어진 ‘학생동원’의 현장을 촬영한 기록물이라 할 수 있다.

[사진 2] 징병검사 기념사진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display: inline-block;">松田茂雄 (土木管區) (甲種合格)</div>	松原正雄(韓○) (土木管區) (第一乙種)	河本玉麒 (第○里)
	河本逸鉉 (甲種合格) (全州貯金管理所)	河本周鉉 (甲種合格) (京城キッコー醤油)

사진상 위치 및 신상 명세
□ 표시가 민찬식(송전무용 / 토목관구 / 갑종합격)

일제는 아시아·태평양전쟁이 격화되자 모자란 병력을 충원하기 위해 조선인을 군인으로 동원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초기에는 지원병志願兵이라는 명목으로 육군과 해군의 특별지원병제를 실시하였고, 이어서 1943년 말 전문학교 이상의 청년들을 학도지원병學徒志願兵으로 동원하였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로서 조선의 일반 청년들을 전면 징병하기 위해 1943년 병역법을 개정하였다.

[사진 2]는 개정된 병역법에 따라 민찬식 등 일행이 5월 15일 징병검사를 받은 직후에 촬영한 사진이다. 사진 뒷면의 메모를 통해 민찬식은 징병검사에서 갑종에 합격하여 현역 입대를 앞두고 되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위의 사진은 1944년 4~8월경 실시된 징병검사의 실제 상황을 유추할 수 있는 정황 자료로서 의미가 있는 기록물이라 할 수 있다.

2023 구입 유물 소개

역사관은 상반기 공개, 경매 구입을 통해 전시, 교육, 연구 등에 활용할 유물 19건 26점을 수집하였다. 올해는 일제강점기 강제동원과 항일운동, 위생·감염·예방접종 등 관련 자료를 공개매입하였으며, 특별전을 위한 풍속 관련 자료를 경매로 구입하였다.

일제강제동원



남양군도 연고자 명부

남양군도 연고자 주소지와 성명(창씨명) 등이 수록된 명부. 재단법인남양군도공조의회 발행 (1954년 11월)



생도모집요람과 지원서

전북 익산 이리공립농림학교의 생도 모집 요람표와 지원서. 입학 특전으로 징병을 유예해 준다는 내용 기재.

위생·감염·예방접종 등



위생가필후 보건요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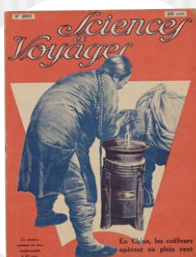
일본 안등정통당주식회사 安藤井筒堂株式會社가 발행한 인체 해부도 전단지.



발진티브스 예방전단지

조선총독부 경상남도 합천 경찰서, 국민총력 합천연맹 방위지도부, 국민총력 가회면 연맹 명의로 발간한 발진티브스 예방 일환으로 몸에 기생하는 이벌레 퇴치 전단지.

풍속



Sciences et Voyages

일제강점기 조선의 전통 문화에 대한
취재기사가 수록된 잡지.
1925년 프랑스 발행.



절후표

절기를 음력으로 바꾸어 놓은 표.

2023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유물 공개 구입 분야

시기

근현대(대일항쟁기, 해방 전후)

분야

일제강제동원

- 사할린, 동남아시아·중서부태평양 지역 강제동원 관련 자료
- 일본군 '위안부', 조선여자근로정신대 관련 자료
- 직업소개광고(전단, 신문) 등 관알선 관련 자료
- 기타 국내외 강제동원 관련 자료

강제동원과 항일운동

- 강제동원 조선인의 노동쟁의 관련 자료
(대왕산 죽창의거, 조선인 토공 민족주의그룹사건 등)

위생, 감염병, 예방접종 등 관련 자료

유형

※ 태극기, 명부, 사진, 필름, 의류, 생활용품, 깃발, 증명서, 상장, 수첩, 앨범, 홍보물(전단, 포스터 등), 화보, 편지, 수기(일기), 총서, 재판기록 등 각 분야에 해당하는 자료 일체

※ 구입 유물 상세는 역사관 홈페이지 > 공지사항 > 공개구입, 경매 화상공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물관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할까? 박물관에 가면, 들어서자마자 안내나 경비원을 마주할 수도 있고, 도슨트의 전시해설을 들을 수도 있다. 그러나 박물관에 근무하는 직원들 중 상당수는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오늘도 일하고 있다.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일까?

역사관 4층 상설전시실에서는 역사관 소장품을 만날 수 있다. 전시실 가운데에 위치한 중앙홀은 종종 기획전시에 활용한다. 2023년 기획전시에는 다른 기관의 소장품도 소개했지만, 역사관에서 새로 수집한 소장품 또한 처음으로 선보였다. 이처럼 관람객이 '전시'를 통해 소장품을 접하기까지 많은 절차를 거친다.

2023년 기획전시에 소개된 신규 소장품



황실어사진첩 제16393호



전진하는 조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이름과 성별, 주민등록번호와 주소지 등을 기록한 주민등록증을 갖고 있다. 신규 수집품 또한 ‘등록’의 과정을 거쳐 개별적으로 고유한 번호와 이름, 보관처 등을 부여 받아 박물관 소장품으로 거듭난다. 레지스트라는 기본적으로 소장품을 등록하고 보관·관리하는 사람이다. 레지스트라의 많은 역할 중 ‘소장품 등록’의 절차를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새롭게 수집한 소장품이 박물관에 들어오면(입수), 신고(반입 신고)를 하고 임시 번호를 매겨 목록을 작성한다. 들어온 순서(입수 순서)와 방법(구입·기증 등)에 따라 등록 번호와 명칭을 부여한다. 증명사진처럼 왜곡되지 않은 사진을 촬영한다. 정확한 수량과 치수(제원)를 파악하고, 재질을 분류한다. 특징적인 부분을 기록하고 번호를 소장품에 기입한 뒤, 보관상자 등에 넣어 수장대에 보관(격납)한다. 보관한 위치(보관처)를 포함한 소장품 정보를 기록하면 일차적으로 소장품을 등록했다고 할 수 있다. 전산시스템에 등록하면 소장품은 주민등록등본과 같은 소장품명세서를 갖게 된다. 등록된 소장품은 입력한 데이터의 수정과 검수를 거쳐 모두에게 공개된다. 공개된 소장품은 국립중앙박물관 e뮤지엄과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e뮤지엄: <http://www.emuseum.go.kr/main>

** 홈페이지: <https://www.fomo.or.kr/museum/kor/Main.do>

소장품 등록 절차



소장품 촬영



등록번호 기입



등록번호 기입



격납

포모 색칠하기 콘테스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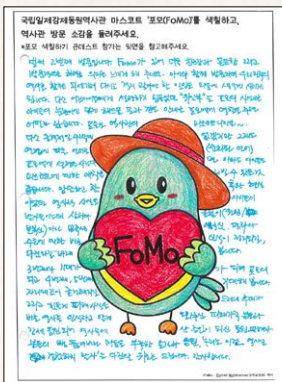
여름방학을 맞이하여 7, 8월 두 달간 포모 색칠하기 콘테스트를 개최하였다. 우리의 귀여운 마스코트를 알리기 위해서 시작한 이벤트였지만, 주말 동안 가득히 쌓인 작품들을 보면서 관람객분들이 그려주실 다양한 모습의 포모가 기대되기도 했고, 관람 후기에 어떤 말씀을 써 주실까 궁금하기도 했다. 콘테스트에 어떤 관람객들이 참여하는지 궁금해서 근처에서 보고 있으면, 어떤 날에는 24개월 아기가 색연필을 들고 색칠하기도 하고, 방과후수업을 마치고 온 학생들이 포모를 알록달록하게 꾸며주기도 하고, 또 어떤 날에는 연세가 지긋하신 어르신께서 포모를 그려주실 때도 있었다. 광복절을 맞아 부모님과 함께 역사관을 방문한 많은 학생들이 콘테스트에 참여하기도 했고, 결과물이 마음에 든다며 제출하지 않고 집으로 가져가는 참여자도 더러 보였다. 이렇게 다양한 분들이 참여해 주신 콘테스트에는 결과적으로 총 607명이 참여하였다. 포모 컬러링과 역사관 관람 후기 작성, 콘테스트 참가 신청서를 작성해 주신 참여자 중 앞의 조건을 만족한 10명의 작품을 소개한다. 역사관이 준비한 작은 이벤트에 참여해 주신 많은 분들의 성원에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WANT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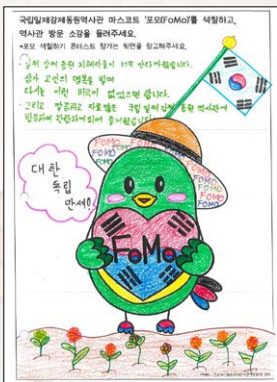
포모 색칠하기 콘테스트 TOP 10



김태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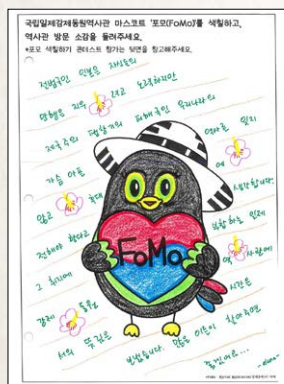
김희정



송영상



오채운



이미현

이렇게 다양한 분들이
참여해 주신 콘테스트에는 결과적으로
총 607명이 참여하였다.
참여해 주신 많은 분들의 성원에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이자근



정경미



정하린



전혜연



하수민



카카오톡 채널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홍보 이벤트

포모가 준비한 부채 받아 가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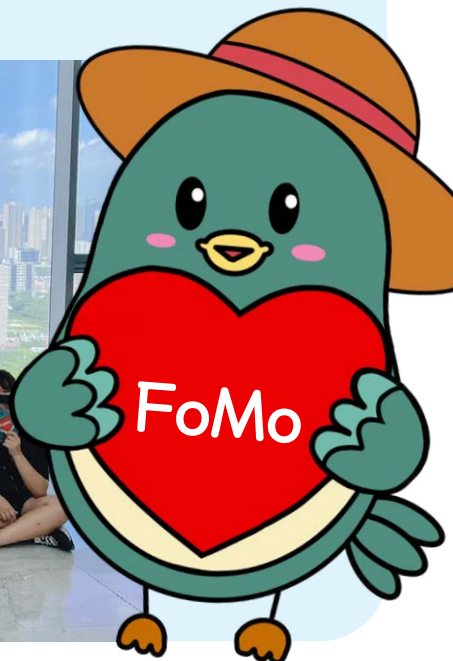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에서는 카카오톡 채널을 추가한 관람객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 여름에는 무더위에 대비하여 7, 8월 두 달간 포모 부채 나눔 이벤트를 준비했다. 높은 언덕을 걸어 올라온 관람객들에게 포모 부채가 시원한 바람을 선사했기를 바란다.

역사관 카카오톡 채널은 매월 1일에 뉴스레터를 발송한다. 채널을 추가하면 뉴스레터 뿐 아니라 월별 전시 및 문화행사 등 주요 행사소식과 역사관 운영 정보를 받아볼 수 있으니 많은 관심을 바란다.



울산 다전초등학교 학생들



@ngg2o



청산되지 못한 역사의 토대 위에서 올라가는 시간과 자라난 2023년
지금 우리들에게 1945년에 해방이 되었는가라고 자문해 본다.

@an_gyeongjun



추석 연휴에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을 방문했어요. 부산 살면 꼭 한
번은 들러볼 만한 곳이라 생각합니다. 가슴 아픈 역사를 기억합시다!

@hhhppp102



일제강제동원역사관의 전시품을 관람하더니 아들이 너무 놀라더라구
요. 너무 불쌍하시다면서 자세히 보더라구요. 말이 필요 없이 눈으로 직
접 역사를 느끼게 하는 뜻깊은 시간이었어요.

@eojin_dambi



문화회관에 공연 보러 왔다가 바로 위에 있어서 찾았는데, 앞으로 자주
자주 찾아야 할 곳이로구나. 전시실에 발을 딛는 것만으로 저절로 숙연
해지네. 어진이에게 역사의식을 심어줄 수 있는 곳.

포모를 찾아라!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포모
#포모를찾아라 #역사관방문후기

ssingmami729



❤️ 🔍 📌



부산에 살면서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이 있는 줄 몰라서 이제야 방문했
다는 게 너무 부끄럽네요. 학교 역사책에서나 드라마에서나 봐왔던 일제
강점기의 강제동원에 대한 깊이 있고 잘 몰랐던 또 잊고 있었던 가슴 아픈
역사를 다시 또 깊이 느끼게 되는 뜻깊은 시간이었어요. 일상의 풍속도 또
깊었어요.

지난 9월 2일부터 10월 9일까지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은 직접 역사관을 찾아와주신 관람객들을 위해 <포모를 찾아라!> 이벤트를 진행하였다.

역사관 곳곳에 있는 마스코트 '포모(FoMo)'를 찾아 사진을 찍고 역사관 방문 후기와 함께 SNS에서 참여할 수 있는 이벤트였으며, 약 한 달간 많은 관람객이 역사관을 방문하여 전시를 관람하고 역사관 마스코트 '포모'와도 인사를 나누었다. 이번 이벤트를 통해 강제동원 그리고 우리 역사관에 대한 관람객들의 다양한 감상 및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은 앞으로도 흥미롭고 유익한 전시와 이벤트들을 많이 마련하여 부산뿐만 아니라 전국의 많은 사람이 찾아오는 역사관이 되기를 희망한다.



7월 22일

민주평통 방문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는 민주적 평화통일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하여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자문에 응하는 기구로, 지역회의·협의회를 통해 미래세대의 통일인식 함양에도 힘쓰고 있다. 7월 22일 토요일에 민주평통 부산연제구협의회에서 80여 명의 초·중학생들과 함께 역사관을 방문했다. 학생들은 도슨트 선생님께 역사관 안내를 받고, 질서정연하게 역사관 관람을 마친 후 포도 색칠하기에 참여하고 역사관 관람 후기도 남겨주었다.





10월 4일

서울특별시의회 시찰단이 지난 10월 4일 역사관을 찾았다. 이번 방문은 서울시의회의 부산광역시, 경남 거제시 일원 시찰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역사관은 이번 방문을 사업 확장의 기회로 삼고자 자세한 역사관 소개를 시작으로 협업 사업 제안, 시설 견학 시간을 마련했다. 향후 지속적인 교류로 다양한 성과를 기대한다.

서울시의회 방문기

평소 역사에 관심이 많았다는 부산고등검찰청 최경규 검사장(사진 오른 쪽에서 네 번째)이 간부 검사들과 함께 역사관을 방문하여 박준현 학예사의 해설을 들으며 전시실을 둘러보았다.

부산고등검찰청 방문기



11월 21일

부산박물관

도슨트 답사

글. 정은서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도슨트

지난 6월 24일,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도슨트는 부산박물관 특별전인 '조선의 외교관, 역관' 전시를 보기 위해 모였다. 개인적으로 청 말 시기 개인이나 사절단들의 활동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특별전의 주인공인 조선의 외교관, 역관들은 당시 어떠한 활동을 하였는지도 궁금증이 생겼다. 이렇게 평소 궁금하고 가보고 싶던 전시를 역사관 도슨트 답사로 가볼 수 있게 되어 기뻐다.

특별전의 역관 관련 여러 유물뿐만 아니라 전시기획자들이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유물을 배치하였는지 다양한 것들에 주목하여 전시를 관람해 보았다. 비어 있는 벽면에 조명을 비춘다던지, 영상을 재생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전시를 연출하여 지루할 틈이 없는 전시였다.

감사하게도 부산박물관 도슨트 선생님께서 시간을 내주셔서 특별전 전시해설을 들으며 관람을 할 수 있었다. '조선의 역관'이라는 내용 자체가 조금 생소하기도 했고 공적인 부분보다는 사적이고 개인적인 내용이 많아 어려움을 느낄 수 있었는데, 해설을 들으니 전시를 이해하기가 쉬웠다. 역사관 도슨트로서 타 기관의 도슨트 해설을 들으니, 전시해설 내용뿐



부산박물관 기획전 조선의 외교관, 역관 전시장 입구에서 기념촬영



부산박물관 도슨트 선생님의 해설을 듣는 역사관 도슨트

만 아니라 도슨트 선생님의 해설 방식에도 주목하며 전시해설 기법에 관해서도 많은 공부를 할 수 있었다. 부산박물관 도슨트 선생님의 해설은 친근하면서도 내용 전달이 쉽게 잘 되었고, 듣는 사람도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해설이라 느껴졌다. 내용 전달이 용이하고 듣는 사람도 편안한 해설을 할 수 있도록 더 많이 연습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 그동안 역사관에서 해설을 하면서 관람객들의 동선을 유도할 때 어색한 부분이 여러 차례 있었는

데, 그 부분에서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다시 생각해 보게 되는 계기가 되어 뜻깊었다. 부산박물관의 특별전 ‘조선의 외교관, 역관’ 전시도 물론 매우 좋았지만, 도슨트 선생님의 전시해설 덕분에 많은 것을 배우는 시간이 되었고, 역사관의 청년 도슨트들과 함께 전시해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는 소중한 기회였다. 앞으로도 다양한 기관들을 답사하면서 전시해설을 연구할 기회가 있기를 바란다.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향수 제작

글. 김세정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도슨트



1. 향수 공방에서 조향하는 김세정 도슨트
2. 학교 수업에서 '박물관 향수' 콘텐츠를 발표하는 모습

안녕하십니까.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도슨트로 근무하고 있는 김세정입니다. 역사관 향수를 제작하게 된 계기는 재학 중인 대학교 수업에 문화유산을 가지고 자신만의 콘텐츠를 만드는 과제의 일환이었습니다. 저는 ‘콘텐츠를 통해 어떠한 감각을 자극하고 활용해 보자!’라는 생각을 하며 여러 사례를 조사했는데, 시각, 청각, 촉각의 활용은 많았지만 후각의 활용은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향수에 문화유산을 접목시켜보자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정해야 하는 것은 접목시킬 수 있는 문화유산이었는데, 역사관은 도슨트 활동을 하는 제가 가장 잘 아는 곳이라 생각해 선택하

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은 ‘어떤 향으로 역사관을 구현할 것인가?’였습니다. 어두웠던 당시의 시대 상황, 제가 생각하는 역사관의 의의, 유물, 분위기 등에 영감을 받아 조향했습니다. 역사관 유물이 서류, 편지 등 오래된 지류라는 점, 탄광 관련 유물들과 재현 전시를 하고 있다는 점에 영감을 받아, 오래된 지류 냄새와 탄내라는 두 가지의 향을 섞었고 전체적으로 묵직한 향으로 조향했습니다. 그리고 맡다 보면 라벤더 향이 적지만 존재감 뚜렷하게 마지막까지 느껴집니다. 라벤더는 보라색의 꽃이고 보라색은 희망을 상징하는데, 우리 민족이 어려웠던 시대 상황 속에서도 광복이라는 희망을 놓지 않았던 것에서 영감을 받아 함께 조향했습니다.

이처럼 과거의 아픔과 광복이라는 희망을 상징하는 향을 향수로 제작하면서 과거를 오래 기억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나아갈 대한민국의 희망적인 미래를 담아(이것은 ‘함께 기억하고 널리 알리는 역사관’인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의 의의와도 연결됩니다.)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을 담은 향수가 비로소 세상에 나오게 됩니다.

저의 기획 의도는 어디서든 문화유산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향수를 뿌린 이곳이 곧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역사관에서 본 유물과 설명, 그때의 감정들까지 다시 오롯이 기억하면서, 최종적으로는 어렵고 멀게만 느껴졌던 문화유산을 향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더 쉽게 즐길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문화유산에 관련된 직종에 종사하면서 문화유산의 대중화를 향해 다방면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그에 대한 첫 발걸음인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을 담은 향수는 정말 큰 의미가 있던 과제이자 소중한 고 뿌듯한 작품입니다.

팟캐스트 운영

공오일에프엠 051FM '40계단 앞 역사관광과' 진행 및 출연

글. 홍준영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도슨트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의 청년 도슨트로 활동하고 있는 저는, 공오일에프엠에서 <40계단 앞 역사관광과> 프로그램의 진행을 맡고 있습니다. 공오일에프엠은 '부산의 오늘을 기록하고 사람을 연결하는' 자급자족 부산지역미디어단체로, 2017년 12월 개국하였습니다. 저희 채널에서는 인생의 한 순간을 목소리로 담은 시민 초대석 <인생 레코드 부산>, 부산의 인디음악을 소개하는 <부산인디음악방송>, 그리고 40계단 앞에서 전하는 부산의 어제, 아래계의 이야기 <40계단 앞 역사관광과>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슨트로 활동하며 역사관 밖에서도 일제강제동원 역사를 더 많은 분들에게 널리 알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행하는 <40계단 앞 역사관광과>에서 역사관 도슨트 선생님들과 함께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을 소개하는 방송을 기획하였습니다. 이번 방송에서 역사관을 소개하고 전시해설의 경험을 나누며, 일제강제동원 역사를 어떻게 하면 더 다양한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돌발 질문에도 막힘 없이 대답해주시던 노건후, 배병용 도슨트에게 지면을 빌려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역사관 멀티미디어실에서 팟캐스트 녹음 후 기념 촬영을 하는 도슨트



QR코드를 인식하시면
공오일에프엠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노건후

'함께 기억하고 널리 알리는' 국립일제강제동원 역사관 도슨트 노건후입니다. 단풍이 한층 깊어진 11월 첫 주말, 공오일에프엠의 <40계단 앞 역사관광과> 프로그램에 출연하였습니다. 도슨트 활동이 휴지기에 들어가는 11월과 12월, 팟캐스트의 참여를 통해 새로운 경험을 해봄과 동시에 역사관과 도슨트 활동 홍보에 도움이 되어 보고자 출연을 결심했습니다. 처음 해보는 팟캐스트라 긴장되기도 하고, 잘할 수 있을까 걱정도 많았습니다. 앞서서 녹음 경험이 있으신 준영, 병용 도슨트 두 분의 조언과 적극적인 리액션 덕에 방송을 무사히 잘 마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

배병용

역사관 새내기 도슨트 배병용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공오일에프엠의 '40계단 앞 역사관광과' 두 번째 녹음이었지만, 긴장되는 건 똑같더라고요. 그래도 함께 하는 준영, 건후 도슨트가 있어서 참 든든했습니다. 이번 회차 녹음 제안을 받았을 때에는 '관람객분들께 해설하듯 이야기하면 되겠거니'라고 생각했는데, 녹음 당일 리허설을 할 때도, 심지어는 녹음하는 순간에도 새로운 말들이 계속 샘솟는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 또, 다른 선생님들과 전시해설 경험을 공유해 보니 저의 전시해설에서 보완해야 하는 부분과 앞으로 어떻게 해설해야 할지 방향을 잡을 수 있어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다음번에는 다른 도슨트 선생님들도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역사관 고객 만족도 조사 결과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에서는 매년 관람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고객만족도조사를 진행한다. 올해도 어김없이 찾아주신 분들의 의견을 듣고자 2023년 8월에서 9월까지 두 달간 고객만족도조사를 진행하였다. 이번 만족도 조사는 8월 15일 광복절을 맞이하여 찾아주셨던 관람객들과 9월 22일 개최된 전국합동위령제에 참석한 유족들의 고견도 함께 수렴하게 되었다.

여름 체험활동 및 가을 소풍을 맞이하여 방문하였던 학생 단체 관람객은 역사관에 대한 만족도 평가에 긍정적인 평가를 하였다.

역사관 만족도 평가 중에서 시설에 대한 ‘쾌적성’ 항목과 ‘역사관을 이용해 본다면 시민들의 인식이 더 좋아질 것이다.’와 ‘역사관은 설립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같이 기관성과에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 점수를 받은 점이 주목할 만하다. 추가로 살펴볼 점은 올해부터 재개한 역사관 전시해설(도슨트)프로그램에 관람객이 적극적으로 호응했다는 점이다. 코로나19로 중단되었던 전시 해설에 대한 수요가 높았음을 알 수 있다.

안타깝지만 좋은 평가를 받기만 한 것은 아니

다. 지속적으로 언급되고 있는 역사관 접근성과 관람 동선에 대한 부분은 점진적인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전 방문 경험이 없다.(59.3%)’고 응답한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것으로 볼 때, 역사관에 대한 홍보를 더욱 활성화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기도 한다. 더 다양한 전시나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요청(43.2%)도 많았다. ‘가족(64.1%)’과 함께 방문하였다고 응답한 비중이 높은 점으로 볼 때, 역사관에 자녀 교육을 목적으로 방문하는 관람객이 많다는 점을 시사한다. 역사관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오늘도 관람객의 견해를 듣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시도한다. 매년 시행하는 역사관 고객만족도조사와 각 층에 있는 ‘고객의 소리함’, 그리고 올해 신설한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앞으로도 다양한 방법으로 관람객의 의견을 듣고 적극적으로 역사관의 소식을 전하고자 한다.

내년에도 관람객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나날이 발전하고 함께 기억하며 널리 알리는 역사관이 될 것을 약속드린다.



공익신고·신고자 보호·지원제도 알아보기



공익침해행위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신고자보호법」 별표에 규정된 공익침해행위 대상법률('23년 8월 기준 471개)의 행정처분이나 벌칙의 대상이 되는 것



공익침해행위신고방법



1. 국민권익위나 조사기관, 수사기관 등 공익신고 기관에
2.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을 밝히고(실명신고)
3. 불법행위의 내용과 불법행위를 한 자에 대해 작성한 뒤
4.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비실명대리신고방법



1. 공익신고자가 변호사를 선임하여
2. 신고자 인적사항을 봉인한 채 변호사에게 신고를 위임하면
3. 변호사가 신고자를 대신하여 변호사 명의로
국민권익위원회에 대리 신고를 합니다.



공익신고자보호·지원제도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 및 제30조 비밀보장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신고자 동의없이 다른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보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익신고상담국번없이 ☎110 또는 ☎1398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과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의 주요 소식을 담아

연 2회 발행하는 소식지 『FoMo』에 대한 독자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설문조사를 실시합니다.

보다 유익한 소식지로 거듭나기 위한 소중한 참고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니 구독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조사기간: 2023.12.01.(금) ~ 12.10.(일) • 경품발송: 2023.12.11.(월)

※ 소식지 만족도 조사는 온·오프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참여자는 QR코드로 참여해 주시고, 오프라인 참여자는

설문 응답 후 해당 페이지를 오려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으로 보내주세요.

주소: 부산광역시 남구 홍곡로 320번길 100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 설문에 응해주신 분 중 추첨을 통해 모바일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성별	남 / 여	휴대폰번호	
연령	① 20대 미만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⑤ 60대 ⑥ 70대 ⑦ 80대 이상		
강제동원 피해자·유족 여부	① 강제동원 피해자 ②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③ 해당 없음		
거주지	1. 서울 2. 경기 3. 인천 4. 대전 5. 대구 6. 울산 7. 광주 8. 부산 9. 강원 10. 충북 11. 충남 12. 세종 13. 전북 14. 전남 15. 경북 16. 경남 17. 제주 18. 기타()		

※ 수집한 개인정보는 경품 제공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 ☐ 미동의(미동의 시 경품 추첨 제외)

1. 소식지 FoMo 구독기간은 얼마나 되십니까?

① 2년 미만 ② 2년 이상 ③ 가끔 본다. ④ 보지 않는다.

※ ①~③ 답변자는 2-2 질문으로 ④ 답변자는 2-1 질문으로 이동

2-1. 소식지 FoMo를 보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① 알지 못했다. ② 정보가 많지 않다. ③ 재미가 없다. ④ 책자형이 불편하다.

2-2. 소식지 FoMo는 어떤 방법으로 구독하고 계신가요?

① 역사관 발송 ② 온라인(홈페이지, 블로그, SNS 등) ③ 카카오톡 채널 ④ 역사관 비치용

3. 소식지 FoMo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하십니까?

① 매우만족 ② 만족하는 편 ③ 불만족

4. 소식지 FoMo가 재단·역사관의 정보와 소식을 파악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십니까?

- ① 매우 도움이 된다. ② 도움이 되는 편이다. ③ 도움이 되지 않는다.

5. 현재 기사의 글자 크기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적당하다. ② 더 커져야 한다. ③ 조금 줄여도 된다.

6. 소식지 FoMo는 재단과 역사관의 사업 소식과 특집 기사를 담고 있습니다.

이번 소식지에서 귀하가 관심 있게 즐겨본 부분은 무엇입니까?

- ① 전국합동위령제, 추도순례 등 유족지원사업
 ② 역사관 전시 및 교육, 행사 등 문화사업
 ③ 인금수 님 유족 인경술 님 인터뷰 특집기사
 ④ 기타()

7. 2023년부터 소식지 FoMo를 상·하반기 1회씩 연 2회 발행하고 있습니다.

귀하는 연 2회 발행에 만족하십니까?

- ① 만족한다. ② 만족하지 않는다.(연 회 발행)

8. 2024년 소식지 FoMo에서 소개했으면 하는 콘텐츠가 무엇인가요?

- ① 유족지원사업 관련 내용 확대
 ② 다양한 특집기사 수록
 ③ 역사관 관람객 후기
 ④ 재단·역사관 사업 소식 미리보기(홍보물 등)
 ⑤ 국내외 강제동원지 소개
 ⑥ 기타

9. 소식지 FoMo에 새롭게 신설했으면 하는 콘텐츠 또는 개선사항, 좋았던 점,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자유롭게 작성해 주세요.